



KIA 내야수 류승현이 22일 오기나와 아카마 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연습기에서 1회 무사 1루에서 최충연을 상대로 투런포를 날리고 있다.

아기호랑이 신바람... 코치는 춤춘다

KIA 타이거즈
오기나와 캠프를 가다

류승현·이진영 홈런·김현준 완벽투...신인 고른 활약
삼성전 14-5 대승...박홍식 코치 "고참들 긴장해야"

22일 삼성과의 연습경기가 끝난 뒤 KIA 코치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삼성 안방을 찾아서 경기를 치른 KIA는 14-5 대승을 거뒀다. 결과도 좋지만 신에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코치들을 웃게 했다. KIA는 1회 타진 고졸 1년차 류승현의 선제 투런을 시작으로 심상치 않은 공격을 예고했다. 류승현의 홈런 뒤 2017 신인 김석환이 우전 안타로 분위기를 이었고, 2016 고졸 신인인 이진영도 우중간 적시타로 타점을 올렸다. 이진영의 동기인 김규성도 1회 첫 타석부터 안타를 만들어내는 등 신에 선수들이 시작과 함께 화끈한 방망이 실력을 선보였다. 2회에도 득점은 이어졌다. 1사에서 김석

환이 두 번째 타석에서 멀티히트를 달성한 것은 물론 도루로 2루까지 훔치며 추가 득점의 발판을 놓았다. 예비역 박효일이 선두타자로 나와 2루타로 출루한 3회에는 김규성이 타점을 올렸다. 9-0까지 벌어진 4회, 다시 한번 한방이 나왔다. 김석환과 이준호의 연속 볼넷에 이어 임한용의 적시타로 만들어진 10-0 무사 1-3루 상황에서 이진영이 좌측 담장을 넘기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교체해 들어간 신에 선수들도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 2루수로 교체 투입돼 실책을 기록하는 했지만 2017 신인 김성민이 두 타석에 모두 안타를 때리며 박수를 받았고, 외야수 박정우도 안타와 함께 멋진 수비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경희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포수 이정훈

은 주목받는 방망이 실력은 못 보였지만 끈질긴 풀카운트 승부를 펼쳤다. '막내 포수' 신범수는 타석에서는 잠잠했지만 임기영-손동욱과 호흡을 맞추며 실점 없이 초반 수비를 이끌었다. 신인 담지 않은 실력과 신인 다운 패기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에 코치들의 얼굴에서는 절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16-2017 신인 야수들이 공·수에서 각각 개성 있는 실력을 보유했다.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기가 끝난 뒤 고참급 선수들을 향해 "니들 다 필요 없다"고 박홍식 타격 코치가 깔깔 웃을 정도로 야무진 '아기 호랑이' 들이다. 박 코치는 당장 내년 시즌부터 '내부 경쟁'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다고 귀띔을 해주기도 했다.

어린 야수들의 활약이 눈부셨던 이날, 2016 신인 김현준도 마운드에서 빛났다. 14-5로 앞선 9회 등판한 김현준은 1루수 앞 땅볼과 투수 땅볼 그리고 1루수 파울 플레이로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했다. 조계현 수석코치의 특별 지도 속에 쿼터가 간결하면서 공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상대 타자의 방망이를 연달아 부러뜨릴 정도로 힘이 붙었고, 스피드도 143km를 찍었다. 한편 한방을 보여준 류승현은 "캠프에서 타격 기술에 대해 많이 배우고 발전시키고 있다. 스윙을 짧게 하면서 가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남은 기간 다치지 않고 지금 감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진영은 "공·수·주 모두 신경을 쓰고 있다. 올 시즌 타석에서 급하게 승부를 했는데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하려는 마음이. 남은 캠프 집중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겠다"고 언급했다. /오기나와 글·사진=wool@kwangju.co.kr

신태용 U-20 대표팀 감독 선임

A 대표팀엔 외국인 코치

신태용 축구 대표팀 코치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나서는 U-20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는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22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위원회에서 14명의 후보자를 놓고 의논했다"며 "정정용 감독과 신태용 대표팀 코치를 최종 후보로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신태용 코치를 U-20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U-20 월드컵은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사령탑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정용 감독도 최근 U-19 대표팀을 이끌고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공식 대회를 치러보지 못한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그래서 올림픽을 치러 본 신 감독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과 신 감독의 선임을 놓고 협의를 마쳤다"



며 "신 감독이 U-20 대표팀을 맡게 되면 내년 A대표팀 일정과 겹치게 돼 슈틸리케호에서는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감독이 A 대표팀 코칭스태프에서 빠지는 만큼 반자리를 메우기 위해 슈틸리케 감독이 외국인 수석 코치 1명을 선임하기로 했다"며 "이와 별도로 선수들의 체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력담당 코치도 1명 더 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U-20 월드컵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을 8강으로 이끌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지도자다. 이에 앞서 2009년 프로축구 K리그 성남 일화(현 성남FC)를 이끌고 K리그와 FA컵 준우승을 차지하는 역량을 펼쳤다. 신 감독은 2010년 성남 일화를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2011년에는 FA컵 우승도 경험하는 등 프로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얻었다. /연합뉴스



수창초, 추계 초등야구대회 우승

학강초에 12-5 승리

수창초가 2016 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수창초는 지난 21일 본래리틀구장에서 벌어진 학강초와의 결승에서 12-5로 승리하며 추계 대회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리그전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수창초는 5연승 행진 속에 우승을 이뤘다. 수창초는 첫 경기에서 11-3으로 서석초를 제압한 뒤 대성초에 14-2 승리를 거뒀다. 서림초를 8-1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한 수창초는 화정초를 4-3으로 꺾고 결승 무대에 진출, 우승 가도를 달렸다. ◇ 시상내역 ▲ 최우수선수상 : 정우빈(수창초) ▲ 우수투수상 : 김인우(수창초) ▲ 타격상 : 이서정(4타수4안타·1,000·수창초) ▲ 최다도루상 : 강성민(8개·수창초) ▲ 최다타점상 : 송진형(13타점·수창초) ▲ 감독상 : 남형진(학강초) ▲ 미기상 : 정중하(학강초) ▲ 감독상 : 류창희(수창초) ▲ 지도상 : 배창호·수창초 교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밀어치기 연마...강속구에 밀리지 않겠다"

'고난의 캠프' 자처 김주형
풀타임 올 시즌 터닝포인트
두자릿수 홈런 등 커리어하이
"패기의 신인들이 동기 부여"

프로 13년차 KIA 김주형의 '고군분투' 마무리캠프다. KIA의 오기나와 마무리 캠프 '만행'은 1985년생 김주형이다. 통성고 후배인 '2017 루키' 외야수 김석환과는 14살 차이가 난다. 올해로 벌써 13년차. 신에 선수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무리 캠프지만 김주형은 고난의 오기나와행을 자처했다. 지난 시즌 김주형의 마무리 캠프 참가 요청을 거절했던 김기태 감독은 이번 캠프에는 김주형과 동행을 하고 있다. 대신 '최고참' 선수로서 특별 대우를 잊지 않았다. 세부적인 훈련 스케줄은 김주형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참"의 캠프 목표는 '밀어치기'다. 김주형은 "몸은 힘들어도 여기에서 훈련을 하는 게 낫다"며 "밀어치는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 올 시즌에 밀어서 홈런을 친 적이 있는데 맞는 순간 갖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투수와 싸움을 위해서도 밀어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체와 허리 밀어서 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고난 파워에 좋은 스윙 궤적을 가지고 있지만 좀처럼 '유망주'라는 타이틀을 때지 못했던 김주형이다. 그래서 처음 풀타임을 소화한 올 시즌은 김주형에게 터닝포인트다. 시즌을 완주하면서 자신의 최고 기록들도 갈아치웠다. 345타수 97안타로 0.281의 타율을 남긴 김주형은 처음 두 자릿수 홈런을 넘기면서 19홈런까지 기록했다. 49타점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유격수를 도전을 시작으로 3루, 2루, 1루, 유격수 자리까지 돌면서 전전후 수비수로서의 알짜배기 활약을 했다. 하지만 지난 기대와 가진 재능을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해야할 일도 많다. 고참 선수로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린 김주형은 지난 9월에는 자신을 꼭 닮은 아들도 얻었다. 눈에 밝히는 아들을 두고 건넌 캠프인 만큼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가고 싶다는 각오다. 며칠 전 김주형은 정해진 스케줄이 끝난 뒤에도 어린 선수들과 경기장에 남아 타격 훈련을 했다. 라이브 배팅 때 했던 스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연습한 게 잘 나왔었는데 오늘은 스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난다"며 김주형이 방망이를 집어들자 김기태 감독은 "야구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한 번에 어떻게 되겠느냐"고 격려하며 훈련을 지켜보기도 했다.



KIA 오기나와 캠프의 '최고참'인 내야수 김주형이 2016 신인인 후배 류승현과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패기 넘치는 신인들은 김주형을 움직이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 김주형은 "올해, 내년 신인들인데 스윙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란다. 내가 저 나이에 때는 저런 스윙을 못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력이 갖추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괜히 긴장이 된다"며 웃었다. 김주형이 '최고참'으로 치르는 마무리 캠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 /오기나와 글·사진=wool@kwangju.co.kr

잠실야구장 돔이나 개방형이나

내달 2일 공개토론회

새로 짓는 잠실야구장을 돔구장으로 할지 종전대로 개방형으로 할지 의견을 묻는 공개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프로그래밍, 야구 해설위원 등 야구계 전문가, 학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서울시와 KBO 홈페이지에서 할 예정이다. 돔 구장은 날씨가 안좋아도 경기를 할 수 있고, 비수기엔 콘서트나 실내 행사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적

은 것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문제는 건설비와 운영비가 개방형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 4만석 규모 돔형 야구장을 짓는 비용은 3천억~4천억원, 운영비는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개방형은 건설비 1천억~1천700억원, 운영비 5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돔구장의 단점은 인조잔디라는 점이다. 인조잔디는 충격이 천원 잔디의 최대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선수 부상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개방형은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한강이 한 눈에 들어오게 시야가 트이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토론회 뒤 국제교류복지기구 추진위원회 자문·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잠실야구장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도전

야구계 원로 김응용(75·사진) 전 한화 이글스 감독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후보 등록을 하고 출사표를 올렸다. 김 전 감독은 22일 후보 등록절차를 마친 뒤 "내 목표는 한국야구계 대화합이다.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와 사회인 동호인, 소프트볼, 여자야구, 심판, 더 나아가 시도협회와 연맹, 야구팬들과 국민이 야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 야구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추대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투표로 평



가를 받아야 하는 선출직 회장 견선에 나선다.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다가 20일 결심했다"며 "솔직히 떨리고 두렵다"고 털어놓았다. 대한야구협회는 24일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후보자들은 25일부터 29일까지 5대 동안 선거 운동을 벌인다. 선거는 30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